



이미숙 | 장신대

1. 서론

요시야의 죽음은 열왕기하 23장 28-30절과 역대하 35장 20-27절의 두 곳에 나타나며 이후 외경인 에스드라서 1장 23-31절에서 다시 한 번 언급 된다. 요시야는 종교개혁가로서 유다 왕국 말기에 찬란한 통일왕국 시대의 옛 영광을 재현할 왕으로 온 백성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런 그가 국제전쟁에 휘말려 갑작스럽게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유다 왕국은 요시야가 죽은 후 약 20년이 지나 멸망했다. 따라서 그의 예기치 않은 죽음은 유다 왕국 멸망과 관련해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정경으로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첫 기록으로 여겨지는 열왕기하에서 그 사건은 단 한 구절로 간단하게 언급되었다(왕하 23:29). 이를 두고 프로스트(S. B. Frost)는 큰 사건이 터졌는

데도 ‘밤에 짓지 않았던 개’처럼 매우 이상한 일 이었다고 비유했다.¹⁾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과 곧 이은 유다 멸망이라는 ‘대 파국에 의해 몽롱했던’ 소위 신명기 역사가에 비해 역대기 기자는 이 침묵을 과감하게 깨뜨렸다.²⁾ 왜 그는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은 것으로 전함으로써 그 침묵을 깨뜨려야 했나? 누군가 요시야의 죽음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려한다면 그의 완벽한 종교개혁과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즉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역대기 이후에 요시야의 죽음을 설명하려는 유대인들의 변증적인 주석이 많이 나왔지만 역대기 기자의 해석은 분명하며 냉철하기까지 하다. 그는 과거 유다 왕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 요시야의 죽음이 자신의 시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이며 신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다.

2. 연구사와 문제

역대기의 역사적 자료로서의 신뢰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우세하였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조화를 이루는 역사책으로, 혹은 보충자료로 인정받았다.³⁾ 따라서 열왕기가 남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역대기에서 규명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역대기 본문에 깊이 새겨진 신학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었다. 경건한 요시야는 왜 하

* 이 논문은 2015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제99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2015. 9. 18)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1) S. B. Frost, "The Death of Josiah: a Conspiracy of Silence," *JBL* (1968), 369.
- 2) G.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허혁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6), 347.
- 3) M. P. Graham, *The utilization of 1 & 2 Chronicles in the reconstruction of Israelite history in the nineteenth century*,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0), 1-8. 또한 K. Peltonen, *History Debated: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Chronicles in pre-critical & critical research V. 1*, (Helsinki: Finish Evangelical Society, 1996), 1-68.

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야 했는가? 역대하 35장의 가장 이른 주석서라고 볼 수 있는 외경 에스드라 1장은 요시야에게 느고를 막지 말라는 경고를 해 준 사람이 예레미야였다고 변경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해석했다.

요세푸스는 역대기의 기록에 의지하면서 요시야의 죽음을 ‘운명’이었다고 주석하였다.⁴⁾ 그는 요시야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번덕스러운 악한 ‘운명’에 의해 희생된 죄 없는 사람이었다고 변호하였다. 7세기경의 타르굼역은 본문에 관한 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역대기의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주석에 가깝다. 타르굼역은 MT의 역대기 본문을 대체로 따르면서도 느고가 요시야에게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신, 곧 애굽 신이 말한 것이라고 하여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정당화 하였다.⁵⁾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것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했다는 것이다. 요시야에 대한 변증적인 주석은 이후의 랍비문헌에서도 발견된다.⁶⁾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 제기된 역사적 관점 내에서 역대기의 역사성을 탐구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역대기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연구와 역대기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건할 수 있는지의 역사비평학적 연구는 드 베테(W. M. L de Wette)에 의해 시작되었다.⁷⁾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은 역대기의 신학적인 경향

4) F. Josephus, *Ant* 10:73-78. 요세푸스의 주석에 대해서는 C. T. Begg, "The Death of Josiah: Josephus and the Bible,"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V. 64, (1988), 157-163; S. Delamarter, "The Death of Josiah in Scripture and Tradition: Wrestling with the Problem of Evil?" *VT* LIV, 1 (2004), 43-48 참고.

5) 타르굼역은 역대하 34장 21절의 엘로힘(אֱלֹהִים)을 '나의 신(my idol)', 즉 느고 자신의 신으로 읽었다. J. S. McLvor, *The Aramaic Bible: The Targum of Chronicle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4).

6) S. Delamarter, "The Death of Josiah in Scripture and Tradition: Wrestling with the Problem of Evil?" 56-60.

7) M. P. Graham, *The utilization of 1 & 2 Chronicles in the reconstruction of Israelite history in the*

과 방법론상으로 현대의 역사편찬에 가깝다고 인정받는 열왕기⁸⁾와 상대적으로 비교되어 역사적 자료로서 평가받지 못했다.

20세기에 역대하 35장에 대한 연구는 요시야의 므깃도 전투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와 본문의 대본(Vorlage)에 대한 전승사적인 논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역대기보다 열왕기의 역사성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요시야가 전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느고에 의해 소환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마이어(J. Mayer)⁹⁾와 말라맛(A. Malamat)¹⁰⁾처럼 고고학적 연구와 바벨론 연대기 등을 들어 역대기의 역사성을 더 인정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역대기의 자료 출처를 두고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처럼 열왕기와 역대기사이의 중간 대본을 가정하는 경우¹¹⁾와 탈쉬르(Z. Talshir)와 베그(C. Begg)처럼 역대기 기자의 창작으로 보는 견해가 최근까지 대립되고 있다.¹²⁾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인 접근과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준 연구도 있다. 프로스트는 요시야가 필사적인 개혁에도 보상받지 못하고 살해당한 사건을 ‘신학적 재앙’이라고 묘사하며 므깃도의 비극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탐구했다.¹³⁾ 그는 열왕기 외에 요시야 죽음을 언급한 구절들(렘 4:20, 22:15-16, 10; 속 12:11; 계 16:16)을 분석하고 이것들이 요시야와 관계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구약이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은 요

nineteenth century, 9. 또한 K. Peltonen, *History Debated: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Chronicles in pre-critical & critical research*, 69.

- 8) 역사비평학자들에게 열왕기하 23장 28-29절은 정교한 이야기로 다듬어지거나 신학적인 주석이 없다는 이유로 ‘원 사실’(bare facts)로 받아들여졌다. C. T. Begg, “The Death of Josiah: Josephus and the Bible,” 157.
- 9) J. M. 마이어, 「국제성서주석: 역대하」, (한국신학연구소, 1991), 269-271.
- 10) A. Malamat, “Josiah's Bid for Armageddon,” *JANES* 5, (1973), 267-278.
- 11) H. G. M. Williamson, “The Death of Josiah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Deuteronomic History,” *VT* 32, (1982), 245.
- 12) 윌리엄슨의 위 글에 대한 대립적인 주장은 C. T. Begg, “The Death of Josiah in Chronicles: another view,” *VT* 37, (1987), 1-8. 베그의 주장에 대한 윌리엄슨의 반박은 “Reliving the death of Josiah: a reply to C. T. Begg,” *VT* 37, (1987), 9-15 참고.
- 13) S. B. Frost, “The Death of Josiah: a Conspiracy of Silence,” 369-382.

시아 죽음이 구약의 고전적인 신학의 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역대기 기자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지만 역대기가 마카베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전제아래 히브리식의 역사기술이 아닌 그리스식의 도덕적 역사관에 따라 요시아의 죽음을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요시아의 비극은 구약의 보상신학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말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역대기의 기록을 그리스 역사관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할펀(B. Halpern)은 열왕기에서 유다 멸망의 원인을 므낫세의 죄 때문으로 설명하는 전승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역대기의 요시아 죽음과 비교했다.¹⁴⁾ 그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문학적 전략을 사용했는지 주목했다. 열왕기가 바벨론 유수의 책임을 므낫세에게 전가하는 반면 역대기는 축적된 과정으로서 집단적인 죄로 설명하려는 것이 문학적 전략이었다고 그는 주장한다.¹⁵⁾ 역대기는 유다 멸망의 원인들 중 하나로 유다 백성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죄를 든다. 그런데 요시아도 ‘사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탓에 걸려들어 죽었다는 설명으로써 영웅의 격하가 가능했던 것은 역대기 기자의 시대는 ‘요시아의 변호’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할펀은 또한 역대기 기자가 요시아의 죽음을 개인적인 죄로 설명한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혀 새로운 통찰을 하게했다. 그러나 격하된 요시아 왕의 죽음이 유다 왕국의 종식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21세기에는 요시아 죽음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로부터 벗어나 문학적인 접근에 의한 새로운 연구 경향이 대두되었다. 밋셀(C. Mitchell)은 요

14) B. Halpern, "Why Manasseh is Blamed for the Babylonian Exile: the Evolution of a Biblical Tradition," VT 48 (1998), 473-514.

15) 윗글, 474-485.

시아 왕의 죽음과 유월절 이야기(대하 35:1-19) 사이의 문학적 관계를 탐구했다.¹⁶⁾ 그는 요시아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을 유월절 준수 이야기에서 찾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의 유월절 준수를 야훼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유월절의 지리적 범위를 두고 온 이스라엘(대하 35:3)이 아닌 ‘남아있는 이스라엘’(대하 34:9, 21; 35:17)이라고 말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며 요시아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대하 35:18)과 비교하는 것도 그의 지위에 대한 강등이라는 것이다. 유월절을 ‘요시아의 명령대로’ 행한 것(대하 35:16)도 히스기야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 것(대하 30:16)과 대조되어 요시아의 독단으로 비취질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잔젠(D. Janzen)도 열왕기에 나타난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죄를 살펴봄으로써 선한 왕들의 죄가 포로기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식적인 접근으로 찾아보려 했다.¹⁸⁾ 그는 열왕기에서 요시아 왕의 죄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의 유년시절부터 개혁이전까지, 즉 26세 이전까지 므낫세와 아몬의 죄를 따랐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가 무시된 것은 그의 종교개혁 업적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열왕기하 23장의 최종 본문은 여호야긴의 미래 행동을 위한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끝이 아니며 그의 악은 요시아와 히스기야처럼 무시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잔젠은 요시아 죽음을 여호야긴과 연관시킴으로써 역사비평적 읽기가 간과했던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냈지만 열왕기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16) C. Mitchell, "The Ironic Death of Josiah in 2 Chronicles," *CBQ* 68 (2006), 421-435.

17) 밋셀은 요시아의 독단은 레위인들에게 더 이상 계를 뉘 필요가 없다(대하 35:3)고 말한 점에서도 엿보이며 그가 레위인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도 사독계열만 합법적이라는 역대기 기자의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율글 430-431.

18) D. Janzen, "The Sins of Josiah and Hezekiah: A Synchronic Reading of the Final Chapters of Kings," *JOT* vol 37.3 (2013), 349-370.

지금까지 역대기의 요시야 죽음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밋셀이 요시야 죽음을 유월절과 관련시킨 연구 외에는 독립적인 이야기나 요시야 이야기의 부록으로서 주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요시야 죽음을 둘러싸고 열왕기와 역대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집중적인 연구가 나왔지만 여전히 논쟁중이고 그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영구적인 미제’라는 회의가 나올 정도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공시적 읽기의 하나로 역대기에 나타난 요시야 죽음의 기사를 거시적 구조아래서 살펴보고 그의 이야기를 요시야 왕 이야기의 부록이나 독립적인 기사가 아닌 유다 왕국의 멸망이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선행 연구들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또 다른 신학적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거시적 구조

역대하 34-36장은 요시야의 통치와 그의 죽음이후 급속하게 기울어 가는 유다 왕국의 명운과 멸망을 보도한 뒤 성전 건축을 허용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전하면서 역대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이다. 요시야 왕의 험격한 공적에 뒤이은 갑작스러운 죽음의 보도는 보상신학이나 역사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기에는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루이스 종커(Louis C. Jonker)는 역대기에서 요시야 통치 기록 중 유월절 준수가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이며 이 부분의 기능은 왕의 업적보다는 유월절 자체를 강조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⁹⁾ 만일 역대기 기사가 요시야 왕의 통치를 기록한 이유가 칭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뒤이어 그의 불순종을 부각시킨 죽음에 대한 보도는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19) Louis C. Jonker, Reflections of King Josiah in Chronicles: Late Stages of the Josiah Reception in 2 Chr 34f.,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3).

이러한 관점은 요시아 왕의 죽음 이야기를 독립적이거나 부록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을 위해 종커의 주장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역대하에 나타난 요시아 통치부분(대하 34:1-35:19)을 묘사하는 본문의 공식적인 기술을 주목하고 신명기사가적인 설명과 다른 관련본문들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역사적인 문맥을 살펴보는 방법론²⁰⁾을 사용해 요시아 통치 본문의 기능을 밝히고자 했다. 열왕기에서 요시아의 유월절 기사는 단 세 구절로 요약되어있는 반면 역대기에서 이 부분은 크게 확장되어 있다. 이는 열왕기는 종교개혁의 주체로서 요시아를 이상화한 반면 역대기에서는 유월절 자체가 강조되며 요시아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제도화하는 사람으로 도구화되었다는 것이다.²¹⁾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요시아를 덜 찬양하는 것은 분명하다.²²⁾

종커는 역대기에 나타난 요시아의 통치 기록에 대한 거시적 구조를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에 따라 나눈 결과 그의 제18년에 일어난 개혁조치들(대하 34:8-35:19)이 중심적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1월 14일에 준수된 유월절 이야기(대하 35:1-19)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가 요시아 죽음 이야기를 그의 거시적 구조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역대하 35장 20절의 아하레 콜 조트(אָהַרֵי כֹל זֹאת) '이 일후에'라는 시간적 표지와 뜨깃도 골짜기라는 지리적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시아 제18년에 일어난 개혁조치들은 모두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다. 종커가 말한 대로 요시아의 유월절 본문이 그를 도구화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왕의 죽음에 대한 보도 역시 원인 규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본다.

20) 종커는 이 방법론을 본문-실용적(text-pragmatic) 방법이라고 명명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윗글, 4-15 참고.

21) 윗글, 31-33.

22) S. Japhet, *I & II Chronicles*, (London: SCM Press LTD, 1993), 1020.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는 요시야 죽음 이후 마지막 36장까지 단락에서도 거시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³⁾ 첫째, 아하레 콜 조트(אחרי כל זאת)는 요시야 제18년(주전 622년)으로부터 무려 13년을 뛰어넘어 주전 609년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국제전쟁과 관련된 분쟁의 시점으로 옮긴다. 둘째, 요시야의 사후 그의 뒤를 잇는 네 왕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즉위나일로 시작한다.

역대하 36장 2절 בן שלוש ועשרים שנה יואחז במלכו
(‘여호아하스가 그의 왕위를 시작한 때는 23살이다’)

역대하 36장 5절 בן עשרים וחמש שנה יהויקים במלכו
(‘여호야김이 그의 왕위를 시작한 때는 25세이다’)

역대하 36장 9절 בן שמונה שנים יהויקין במלכו
(‘여호야긴이 그의 왕위를 시작한 때는 8세이다’)

역대하 36장 11절 בן עשרים ואחת צדקיהו במלכו
(‘시드기야가 그의 왕위를 시작한 때는 21세이다’)

세째, 우비쉬나트 아하트 레코레쉬 멜렉 파라쓰(אחת לכורש מלך פרס)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대하 36:22)는 포로후기 공동체의 해방을 암시하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거시적 구조 안에서 단락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지만 시간을 조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동하게 하는 하위 구조 안에서 시간적 표지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יום(היום/‘오늘’)은 요시

23) 딜라드도 역대의 기자의 연대기적 언급이 이야기의 구조를 제공해주는 그의 요시야 이야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저술상의 기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레이몬드 B. 딜라드, 『WBC 역대하』, 정일오 역 (솔로몬 출판사: 서울, 2005), 270. 역대기의 연대기적 언급은 S. Japhet, "Periodization between History and Ideology: The Neo-Babylonian Period in Biblical Historiography," *From the Rivers of Babylon to the Highlands of Judah: Collected Studies on the Restoration Period*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6), 359-361 참고.

야의 죽음 이야기 안에서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말하는 대화 안에서 한번(대하 35:21) 나타나며, 다른 한번은 요시아를 추모하는 관습의 전례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다(대하 35:25). 전자의 경우 하욘(היום)은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날로 결과적으로는 그의 죽음의 날을 암시한다. 이와 달리 후자의 아드 하욘(היום עד / '오늘까지')은 요시아의 사후부터 역대기 기자의 당대까지 지켜진 관습을 보도함으로써 시간을 크게 확장시킨다. 둘째, 베리트슈바트 하샤나(ולתשובת השנה / '새해가 되자')는 여호야킨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점을 나타내 준다(대하 36:10). 요시아 이후의 네 왕들이 모두 애굽이나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갔으나 여호야킨만이 포로로 끌려간 연대를 표시한다. 여호야킨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해이기도 하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을 패망으로 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셋째는 시간의 확장을 나타내는 시간적 표지인 아드(עד / '~때까지')가 이끄는 구절로 모두 네 번 나타난다.

역대하 36장 16ba절 עד עלות חמת יהוה בעמו
 (그의 백성에게 향한 야훼의 진노가 오를 때까지)

역대하 36장 16bβ절 עד לאין מרפא
 (치유가 불가능할 때까지)

역대하 36장 20b절 עד מלך מלכות פרס
 ('바사 왕국의 통치 때까지')

역대하 36장 21a절 עד רצחה הארץ את שבתותיה
 (그 땅이 그것의 안식을 누릴 때까지)

역대하 36장 16절에서 연이어 나오는 두 개의 아드(עד) 구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사자들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로 먼 과거로 소급하는 시점을 가리킨다. 유다 백성의 누적된 죄악이 선

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통일 왕국 초기 시대와 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과 비교되고 있는 것이다. 36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난 두 개의 아드(עד) 구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들은 페르시아 통치시대를 맞은 유다 공동체의 상황을 말해주며 역대하 36장 21절의 아드(עד) 구문은 콜 예메 하삼마(כּוֹל יְמֵי הַשָּׁמָיִם) / '땅이 황폐한 모든 날들 동안', 대하 36:21ba)과 레말로트 쉬브임 샤나(שָׁנָה שְׁבַעִים לְמַלְאוֹת) / '70년을 채우기 위해', 대하 36:21bβ)라는 말로 70년의 기간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70년 기간은 첫 번째 포로기(주전 605년)로부터 70년 후이거나, 유다 멸망으로부터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5/6년의 시점²⁴⁾까지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요시야가 죽은 주전 609년부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까지도 70년 여간에 해당함으로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의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 왕국의 급속한 패망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아래 사체)에 따르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의 거시적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역대하 35장 20절-36장 1절 요시야 왕의 죽음 — 역대하 35장 20aa절
 이 모든 일후에(אחרי כל זאת)

(1) 역대하 35장 20-25절 느고의 원정과 요시야의 최후(היום, '오늘')

(2) 역대하 35장 26절-36장 1절 요시야를 위한 애가와 행적(היום עד, '오늘
 까지')

2) 역대하 36장 2-21절 유다 멸망과 70년 유배 — 역대하 36장 2a절 여호

24) 윗글, 472-473; Ralph W. Klein, *Hermeneia 2 Chronicl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544-545.

야하스가 23세에 즉위(בן+나이+왕 이름+מלכו)

- (1) 역대하 36장 2-12절 마지막 네 왕들의 몰락
역대하 36장 2-4절 여호야하스
역대하 36장 5-8절 여호야김
역대하 36장 9-10절 여호야긴(לחשבת השנה, '제9년에')
역대하 36장 11-12절 시드기야
 - (2) 역대하 36장 13-20a절 유다 멸망의 원인과 참상
역대하 36장 16ba절 그의 백성에게 향한 야훼의 진노가 오를 때까지
(עד עלות חמת יהוה בעמו),
역대하 36장 16bβ절 회복할 수 없을 때까지(עד לאין מרפא)
 - (3) 역대하 36장 20b-21절 페르시아 시대와 땅의 70년 안식
역대하 36장 20b절 바사 왕국의 통치 때까지(עד מלך מלכות פרס)
역대하 36장 21절 그 땅이 그것의 안식을 누릴 때까지
(עד רצתה הארץ את שבתותיה)
- 3) 역대하 36장 22-23절 고레스 칙령과 포로귀환 ————— 역대하 36장
22a절 고레스 원년에(ובשנת אחת לכורש מלך פרס)

4. 수사적 요소들

요시야 죽음 이야기와 36장의 거시적 구조에서 사용된 시간적 표지들은 요시야의 죽음을 정점으로 마지막 네 왕들의 몰락과 패망을 향해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시야 죽음 이야기와 역대기의 마지막 장의 긴밀한 관계는 수사적 요소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된다.

1) 수미상응적 관계

요시야의 최후를 말해주는 서두(대하 35:20-21)와 결말 부분의 고레

스 칙령(대하 36:22-23)은 시대적으로 큰 간격을 보일뿐만 아니라 비극의 시작과 유다 왕국 패망을 딛고 희망을 향해 나가는 시작이라는 면에서도 대조적이다. 서두와 결말은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어휘사용이나 사상이 눈에 띈다. 첫째, 알라(אלה) 동사가 두 부분에서 발견된다. 서두에서 알라(אלה)는 애굽왕 느고의 등장을 묘사하는 가운데 나타나 긴장감을 주며 불길한 징조를 암시한다(대하 35:20). 고레스 칙령 이야기에서 베야알(בְּיָאֵל/그/백성으로 올라가게 하라)는 역대기의 마지막인 동시에 유대 정경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말로 유다 공동체의 해방을 선언하며 강렬한 인상을 준다(대하 36:23). 느고의 등장으로 촉발된 유다 왕국의 위기는 결말에서 유다 공동체가 자유를 얻는 것으로 해결된다. 둘째,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요시야 이야기에서 성전은 그의 비극이 일어난 시점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업적인 유월절 준수 대신 성전을 정비한 일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고레스 칙령의 핵심 사안인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두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한 말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עִמִּי אֱלֹהִים אֲשֶׁר עִמָּנוּ, 메엘로힘 아셰르 임미)는 사실을 들어 전쟁을 만류했다(대하 35:21). 그런가 하면 고레스는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이 말(יְהוָה אֱלֹהֵינוּ עִמָּנוּ, 아도나이 엘로하브 임모)을 사용했다(대하 36:23). 넷째, 비록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두 이방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했다는 사실이다.

역대하 35장 21a절 אֱלֹהִים אָמַר לְבַהֲלֵנִי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속히 하라고 하셨다’)

역대하 36장 23a절 הוּא פָקַד עָלַי לְבַנוֹת לוֹ
 (‘그가 내게 명령하여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다’)

요시야의 이야기 서두와 고레스 칙령의 결말에서 사건의 동력자로 하나님 등장한다는 점과 그에게 순종하는 이방 왕들은 불순종으로 멸망하는 그의 선택된 백성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역대기 기자에게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아래서 일어난 사건으로 냉정하게 바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서두와 결말은 직접 대화법을 포함해 형식상의 공통 점도 보여 준다.

2) 문장론적 구조

요시야의 죽음 이야기와 역대하 36장에서는 바브 계속 미완료 동사로 시작하는 구절은 모두 13회로 전체 구절의 43%의 비중을 차지한다.²⁵⁾ 바브 계속 미완료 동사가 연속적이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요시야의 최후를 전하는 단락(대하 35:20b-24)과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전하는 단락(대하 36:17-20a)이다. 두 비극적인 사건들은 영화의 슬로우 비디오 촬영 기법처럼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반면에 두 비극사이에 배열된 네 왕들의 통치 기간 25년은 빠르고 간결하게 묘사된다(대하 36:2-12).

거시적 구조의 경계를 정하는 시간적 표지들을 제외하고 바브 계속 미완료 문장으로 시작되지 않는 문장들이 있어 주목되는데 이 문장들은 작은 단위의 이야기로 전환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 없는 명사 문장은 왕의 행적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대하 35:26, 27; 36:8). ‘+명사(혹은 전치사구)+완료동사+주어’로 도치된 문장은 바벨론으로 강탈당한 성전기물을 강조한다(대하 36:8, 18). 도치된 문장은 ‘베감’(בַּעַם/혹은 בַּ, 감)이 이끄는 문장에서도 나오는데 모두 유다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는 묘사와 관계있으며 범죄 한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백성이

25) 역대하 35장 21, 23, 24, 25절; 36장 1, 3, 4, 12, 15, 16, 17, 19, 20절

강조된다(대하 36:13, 14). ‘바브(ב) + 하야(היה) + 분사’ 형태의 문장은 유다 백성이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일을 강조한다. 하야(היה) 동사 다음에 분사가 오는 경우는 과거에 계속된 행동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²⁶⁾ 분사형 문장은 요시야를 추모하는 관습을 묘사할 때도 나타난다(대하 35:24b). 부정사 연계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땅의 70년 안식이 시작된 일과 관련이 있다(대하 36:21). 마지막으로 ‘코 아마 르’(כֹּה אָמַר)는 고레스가 칙령을 시작하는 직접 대화를 이끄는 문장이다(대하 36:23).

3) 사람들

유월절 이야기에서 요시야는 절기 행사를 주관하는 실제 주인공이지만 명시적인 이름은 3회에 걸쳐 나올 뿐이다(대하 35:1, 7, 18). 이 이야기에서 요시야에 의해 절기를 행하는 대리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그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주인공들이다.²⁷⁾ 이들은 구문론적 구성으로도 주어를 강조하는 도치형 문장(대하 35:8a, 8b, 9)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역대하 35장 10–18절에서 지속적으로 유월절 행사의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단일한 유월절 이야기 단락과 달리 본문의 단위는 주전 609년부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까지 70년 어간에 일어난 유다 왕국의 몰락과 패망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로서 고유명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요시야 8회, 느고 6회,²⁸⁾ 느부갓네살 6회,²⁹⁾ 예레미야 4회, 여

26) E. Kautzsch,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옮김,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서울, 2003), § 116; Bruce K. Waltke &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37.1.1b.

27) Louis C. Jonker, *Reflections of King Josiah in Chronicles: Late Stages of the Josiah Reception in 2 Chr 34f.*, 35–36.

28) 느고라는 이름은 4회이나 애굽 왕으로 두 번 지칭된다(대하 36:3, 4).

29)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4회이나 갈대아 왕으로 두 번 지칭된다(대하 36:17, 20).

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각각 3회, 고레스와 시드기야는 각각 2회로 나타난다. 일반 무리들로는 느고의 궁수들(대하 35:23a), 요시야의 종들(대하 35:24a),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대하 35:24b), 남녀 노래하는 자들(대하 35:25a), 그 땅의 백성(대하 36:1),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대하 36:14)이 등장한다.

유월절 이야기에서 요시야의 이름이 최소한으로 등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본문에서 그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요시야라는 인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의 특질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일련의 동사들과 함께 두드러지게 묘사된다. 그는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고(כֹּסֵב, 로 헤세브), 오히려 변장하고(הִתְחַפֵּה, 히트하페스) 나아갔고, 듣지도 않았다(שָׁמַע אֵל, 로 사마).³⁰⁾ 그러나 강인한 그의 의지와 달리 정체불명의 궁수들은 그의 운명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후 자신의 종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이송된 후 죽는데 그 과정은 일련의 히필 동사들³¹⁾로 강조되어 견잡을 수 없이 패망으로 휩쓸려가는 무력한 유다왕국의 운명을 예시한다. 요시야를 죽인 느고는 이후 유다 왕국의 운명을 손에 쥔 이방 왕들 중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며 엘리야김 때까지 그

30) 이 표현들은 소위 신명기사가적인 전승과 관계 있다는 견해가 있다. H. G. M. Williamson, "The Death of Josiah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3–245; Williamson,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1 & 2 Chronicles*, (London: Marshall Morgan & Sott, 1982), 409; Williamson, "Reliving the death of Josiah: a reply to C. T. Begg", 9–15. 그러나 본문은 역대기의 창작으로 신명기사가적 전승에 반대하는 견해는 C. T. Begg, "The death of Josiah in Chronicles: another view", 1–8; Z. Talshir, "The Three Deaths of Josiah and The Strata of Biblical Historiography (2 Kings XXIII– 29–30; 2 Chronicles XXXV 20–5; 1 Esdras I 23–31," *VT* XLVI, 2 (1996), 213–236.; S. L. McKenzie, *The Chronicler's us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arvard Semitic Monographs 33, 1984), 188, n. 6. 'כֹּסֵב'(로 헤세브), 'שָׁמַע אֵל'(로 사마) 등은 전형적인 신명기의 어구라고 볼 수 없다. M. Weinfeld, "Deuteronomistic Phraseology", *Deuteronomy and Deuteronomistic School*,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2), 320–365.

31) וִירוּ (바요루/'그들이 화살을 쏘았다/던졌다', 23a), הִנְבִּירוּ (하아비루니/'너희는 나를 옮기게 하라', 23ba), וַעֲבִירוּ (바아아비루후/'그들이 그를 옮기게 했다', 24aa), וַיִּנְבְּרוּ (바아키부후/'그들이 그를 태우게 했다', 24aβ), וַיִּלְכְּדוּ (바올리쿠후/'그들이 그를 데리고 갔다', 24aγ). 이 외 호팔형 동사 הִחֲלִיתִי (하홀리티/'내가 다쳤다', 23bβ)가 있다.

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성대한 장례식³²⁾과 충분한 애도기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유다 백성으로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을 듣자 활 노래를 지어 야살의 책에 기록해 기념하도록 명령했다(삼하 1:17-18). 그가 정적인 그들의 죽음을 공동체 차원에서 애도하자고 한 것은 통합의 목적뿐만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아훼를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라는 새 시대를 향하자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이다.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던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한 애가를 지었다는 것은 애도를 넘어서 유다 왕국이 종식되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준비를 하자는 의도였을지 모른다. 예레미야에 이어 애가를 지은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도 애가를 짓고 요시야를 추모하는 관습을 시작한 인물들로 등장한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성전에 속한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다(대하 35:15a).³³⁾ 만일 이들을 레위인들로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제사장들의 무리와 대조된다.³⁴⁾

요시야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의 주인공은 이방 왕들이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로는 ‘땅의 백성’이

32) 역대기에 따르면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은 이방 왕들에 의해 모두 인질이나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에 묻히지 못해 요시야 왕의 성대한 장례식과 대조된다.

33) MT의 역대하 35장 25절은 그들이 애가를 지은 것인지 단지 예레미야의 애가를 사용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고대역본 LXX은 그들을 ‘남녀 방백들(αἱ ἀρχόντες καὶ αἱ ἀρχοσσαι)’로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가를 말했다고 다르게 전한다. 따라서 현대 번역들도 다른 견해를 보인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번역본들은 표준새번역, 공동역, 공동개정역, 카톨릭새번역, NIV 등이다. 그들이 따로 애가를 지었다고 보는 번역본은 NKJ, NJB이다. 개역과 개역개정, NRS, TNK 등은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지 않아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제시해 준다. 한편 공동역과 공동개정역은 노래하는 남녀를 ‘성가대원’으로 번역했다. 성전에 소속된 노래하는 자들, 즉 가수들과 성전 예언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S. Mowin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V, ii*, (Oxford: Basil Blackwell, 1962), 56-73 참고. 성전 가수들 중 여성이 속했을 가능성은 역대상 25장 5절에서 헤만의 세 딸을 언급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이들이 적어도 약기 연주나 노래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레위인과 제사장 집단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동구,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제 21집 (2006), 10-31.

등장한다(대하 36:1). 이것은 사실상 유다가 행한 마지막 주권 행사였다. 느고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요시야를 죽이고 이후 섭정 왕을 내세워 유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 이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섭정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내세워 유다를 통치했다. 이들의 주권적 행동은 사역형인 히필 동사의 사용에 의해 강조된다.³⁵⁾ 그러므로 이방 왕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 동사들은 요시야 왕 이야기에서 그의 수동적인 위치가 히필 동사에 의해 표현된 것과 대조된다.

마지막으로 고유명사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은 예레미야이다. 요시야 왕 이야기에서 예레미야는 그를 위한 조가를 지은 첫 애곡 전승자로 여겨진다(대하 35:25a).³⁶⁾ 예레미야는 네 왕들의 몰락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시드기야와 관련해서 다시 등장한다. 시드기야의 악행 중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절한 죄가 특별히 언급되었다(대하 36:12).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 땅이 70년동안 황폐해 안식기간을 갖는 일이 그의 예언에 따른 것(대하 36:21)이며 유다 땅으로의 귀환도 그의 예언의 성취라는 언급에서 각각 나타난다(대하 36:22a).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압박한 심판을 외친 예레미야를 세 부분의 거시적 구조 안에서 각각 언급함으로써 유다 멸망과 회복의 주제를 위한 연결점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 무리들 중 도치형 문장으로서 가장 강조된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³⁷⁾이다(대하 36:14). 이들이 이방의 가증한 우상들로

35) 느고 (וַיִּסְרִיחוּ), 바에세레후 36:3a, וַיִּמְלֹךְ, 바야를렉 36:4aα, וַיִּסַּב, 바야쎄브 36:4aβ, וַיִּבְיֵאוּ, 바에비에후 36:4b), 느부갓네살 (וַיִּהְיֶה), 레홀리코 36:6b, וַיִּבְיֵאוּ, 헤비 36:7a, 18b, וַיִּבְיֵאוּ, 바에비에후 36:10a, וַיִּמְלֹךְ, 바야를렉 36:10b, וַיִּשְׁבִּיחֵהּ, 하쉬비오 36:13a, וַיִּגַּל, 바에겔 36:20a).

36) Z. Talshir, "The Three Deaths of Josiah and The Strata of Biblical Historiography," 235.

37) LXX 역대하 36장 14절은 '그리고 모든 유다의 귀족들(εὐδοξοῦ)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으로 다르게 읽고 있다. 에스드라 1서 1장 47절도 '그 백성의 수장들(ηγουμεινοι)과 그 제사장들의 수장들'로 읽는다. 이러한 읽기를 반영해 사라 아팻은 세 계층, 즉 '방백들(עַרְיִים, 사림), 제사장들, 백성'으로 해석한다. S. Japhet, *I & II Chronicles*, 1070. 그러나 어떻게 읽든 제사장 집단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반역한 행위를 늘려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더럽혀 야훼의 심판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별히 멸망의 책임을 제사장들이라는 특정한 집단에게 돌리는 것은 열왕기의 ‘므낫세의 죄’만큼이나 이례적인 언급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의 애가를 지은 남녀 노래하는 자들을 성전에 속한 레위인들로 볼 수 있다면 멸망의 책임자들로 이들이 빠져있고 제사장들을 지적한 것은 역대기 기자의 친레위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⁸⁾ 사라 야벳 또한 이 중요한 구절에서 레위인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말했다.³⁹⁾

4) 용어 특징

요시야의 죽음 이야기와 36장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수사학적인 요소들은 반복이나 문장론에 의해 강조된 용어, 주제어 등에 의해서도 관찰된다.

(1) 전쟁과 해방(אלר, 알라)

요시야가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 나선 느고를 막아서면서 발생한 국지 전쟁이후 유다는 앗수르의 쇠퇴를 틈타 세계 패권을 잡으려는 열강의 분쟁에 휘말려 들고 결국 멸망을 당한다. 요시야 이후 유다의 패망을 보도하는 본문에서 알라(אלר/‘올라가다’)는 서두와 결말에서 그리고 중간 단락에서 전략적으로 나타난다. 본문에서 사용된 알라(אלר) 중 3회(이하 35:20a; 36:6a, 17a)는 전쟁이나 군사적인 의미로 쓰였다. 이때 칼형 알라(אלר)는 느고와 느부갓네살의 첫 등장과 관계있으며 히필형 알라(אלר)는 하나님이 주어로 갈대아 왕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에

38) 배희숙은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과 솔로몬의 개혁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개혁은 레위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배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제21집 (2006년 8월), 69-83. 그러나 에스겔은 레위인을 우상숭배자로 규정하여 반레위적 입장을 대변한다(겔 44:10-14). 한동구,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29-30.

39) S. Japhet, *I & II Chronicles*, 1070.

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문의 결말이자 역대기의 끝 단어이기도 한 베야알(בַּיָּאֵל, 36:23b)은 칼 저시브(jussive) 형으로 유다의 해방과 귀환을 전한다. 여기서 알라(אֵלָּ)는 족장 시대의 가나안 땅 입성과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을 환기시키며⁴⁰⁾ 제2의 출애굽이라는 암시로서 이후 포로 귀환을 묘사하는 상징적 의미를 잇는다(스 2:1, 59; 7:6, 7, 28; 8:1; 느 5, 6, 61; 12:1).⁴¹⁾

(2) 포로

요시야가 전쟁 중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그의 종들에 의해 예루살렘까지 옮겨지는 과정은 일련의 히필 동사에 의해 묘사되었다.⁴²⁾ 이 히필 동사들은 열강의 지배를 받게 될 유다의 수동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요시야 사후 세 왕들은 모두 이방 왕들에 의해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생애를 마감한다. 세 왕들의 포로사건은 유사 동사의 반복으로 강조된다.

여호아하스: וַיִּסְרֶהוּ(바에씨레후, 36:3a), לָקַח(라카흐, 36:4bα), וַיִּבְיָאוּ(바에비에후, 36:4bβ)

여호야김: וַיִּאֲסְרֶהוּ(바야아쓰레후, 36:6bα), לָקַח(레홀릭, 36:6bβ)

여호야긴: וַיִּבְיָאוּ(바에비에후, 36:10a)

시드기야의 최후는 알려지지 않은 채 대신 그의 악행과 죄악이 그의 마지막 기록을 차지했다(대하 36:12-13). 마침내 왕들의 운명처럼 백성도 바벨론으로 유배(בַּיָּאֵל, 바예겔)되어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종

40) M. Kartveit, "2 Chronicles 36:20-23 as Literary and Theological 'Interface'." M. P. Graham & S. L. McKenzie ed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JSOT Supple. 263 (Midsomer Norton, Somerset: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402.

41) Fuh, "עֲלֵה" *TDOT* vol. XI, 82.

42) 위 각주 30번 참고.

(עבדים, 아바담)이 되었다.⁴³⁾

(3) 성전

역대기 안에서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며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요시아 죽음이후 가속화된 유다의 멸망과 고레스 칙령에 이르는 이야기에서도 성전은 중요한 주제어이다. 본문에서 성전은 모두 9회⁴⁴⁾ 나타나는데 이중 4회는 성전기물과 관련된 것이다. 종커는 역대기에서 성전 건축을 담당한 다윗-솔로몬은 북쪽 지파까지 규합해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히스기야-요시아와 연계되며 이 중 요시아의 유월절 준수는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⁴⁵⁾ 그러나 그 절정의 시점에서 요시아는 사라지고 유다 왕들과 백성은 거룩한 성전을 다시 더럽혔고(대하 36:14b) 백성은 그곳에서 살해당했으며(대하 36:17a), 성전은 불에 타 파괴되었다(대하 36:19a). 도치문장으로 강조된 성전 기물은 세 차례에 걸쳐 느부갓네살에게 강탈당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폐허가 된 성전은 70여년이 흐른 후 뜻밖에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재건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는 임무를 주셨다고 말한다. 본문의 서두에서 요시아가 성전을 정비했다는 말은 쿤(כּוּן) 히필

43) 종들(עבדים, 아바담)은 요시아 죽음 이야기에서 그의 부하들(עבדיו, 아다바브)로 나타난다(대하 35:23b, 24a). 이는 의미는 다르지만 주권 국가아래서 종들과 멸망이후 바벨론의 종들이 된 유다의 운명을 대조시키는 수사적 장치일 수 있다.

44) 역대하 35장 20a절, 36장 7a, 10a, 14b, 17a, 18aα, 18aβ, 19a, 23a절.

성전	성전 기물
אשר הכין ישיהו את הבית(35:20a)	ומכלי בית יהוה(36:7a)
בית יהוה אשר הקדיש בירושלם(36:14b)	עם כלי המזבח בית יהוה(36:10a)
בבית מִקְדָּשׁ(36:17a)	וכל כלי בית האלהים(36:18aα)
בית האלהים(36:19a)	אצרות בית יהוה(36:18aβ)
בית בירושלים אשר ביהודה(36:23a)	

45) Louis C. Jonker, *Reflections of King Josiah in Chronicles: Late Stages of the Josiah Reception in 2 Chr 34f.*, 48-60.

형이며 이 동사가 역대기에서 성전 건축 활동과 관련해 28회 사용되었다.⁴⁶⁾ 따라서 쿤(כּוּן) 동사는 결말에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에 나오는 바나(בָּנָה) 동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성전이 새로운 유다 공동체의 근간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4)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역대기 기자는 유다 패망의 원인 중 하나로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본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보낸 사자들(מְלָאכִים, 멜라킴)은 유다의 예언자들은 아니지만 같은 단어로 묘사되며 사실 느고의 경고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으므로 요시아 조차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셈이다.⁴⁷⁾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죄가 특별히 언급되었다(대하 36:12b). 하나님은 왕들과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사실은 살라흐(שָׁלַח) 절대 부정사형을 사용해 그의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 한다(대하 36:15a). 반면에 그들이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조롱한 행동은 분사형과 유사어의 반복으로 매우 강도 높게 비난받는다(대하 36:16a).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놀렸다(מְלַעְבִּים, 말리이빔)
그들이 그의 말씀들을 계속 무시했다(בּוֹזִים, 보즈님)
그들이 그의 사자들을 계속 조롱했다(מִתְעַתְּעִים, 미타오테임)”

하나님의 말씀은 총 8회 중 느고와 관련해서 2회, 고레스와 관련해서도 3회 나타난다.⁴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유다 왕들과 백성에 비해 이

46) 윗글, 58. 각주 27-29 참고.

47) 본문에서 선지자와 관계된 말은 4회 나타난다. 그 선지자(הַנְּבִיאִים, 한나비 36:12ba), 그의 사자들 손으로 (מְלָאכִים בְּיַד, 베야드 말르야카브 36:15a), 하나님의 사자들(הַאֱלֹהִים, 하알라키, 베말라케 하엘로힘 36:16aa), 그의 예언자들(הַנְּבִיאִים, 빈비아브 36:16ay).

48) 하나님이 말씀하셨다(אמר אלהים, 엘로힘 아마르 35:21a), 하나님/야훼의 입으로부터(מפי אלהים) 미

방 왕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결국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⁴⁹⁾

5. 요시야 왕의 죽음과 역대하 36장의 의미

지금까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시야 죽음 이야기가 유다 멸망과 회복을 알리는 역대하 36장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읽기가 요시야의 죽음 이야기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역대기 기자는 유다 왕권이 종식된 이후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없다. 역대기 기록연대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대체로 페르시아 시대 말기나 헬라시대 초기라는 견해가 유력하다.⁵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지 약 2세기를 지난 후 역대기 기자가 요시야 왕의 죽음 사건을 유다의 멸망과 고레스 칙령과 연관시켜 재조명하는 의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요시야의 죽음은 당대 유다 사회에는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유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호탄이었다. 구약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죽음은 책의 시작이나 끝에 언급됨으로써 책의 구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피 엘로힘 35:22a, יהוה גמלי ירוה, 미피 아도나이 36:12bβ), 그의 말씀들(דבריו), 드바라브 36:16aβ), 야훼의 말씀(דבר יהוה), 드바로 아도나이 36:21aα, 22:aα), 예레미야의 입(פיו ירמיהו), 피 이르미야후 36:21aβ, 22aβ).

49)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 이방 왕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Ben Zvi, "When the Foreign Monarch Speaks," *The Chronicler as Author*, 209–228.

50) Louis C. Jonker, *Reflections of King Josiah in Chronicles: Late Stages of the Josiah Reception in 2 Chr 34f.*, 71–82. 사라 야벳은 역대기가 에스라-느헤미야서보다 뒤늦게 저술되었고 에스드라 1서는 역대기 이후에 저술되었다고 본다. S. Japhet, "Postexilic Historiography: How and Why?" *From the Rivers of Babylon to the Highlands of Judah: Collected Studies on the Restoration Period*, 307–330.

도래를 알리는 암시로 사용되었다.⁵¹⁾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창 50:25)으로 끝나 출애굽 시대를 예시하며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정착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며 오경을 마무리한다(신 34). 마소라 배열에 따르면 지도자들 중 중요하게 언급된 죽음은 여호수아(수 24:29; 사 1:1), 사울(삼상 31; 삼하 1:1), 다윗(왕상 2), 아합(왕상 22; 왕하 1:1) 등이다. 이 책들과 달리 역대기는 왕들의 죽음을 대체로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사울과 요시야의 죽음 이야기는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울의 죽음(대상 10)은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 이스라엘의 계보(대상 1-9)와 다윗 왕의 등극(대상 11) 이야기 사이에서 언급된다. 사울의 죽음은 과도기적인 왕정을 끝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의 탄생을 예고한다. 더욱이 요시야의 최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역대기만이 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의 죽음은 특별하다. 따라서 사울의 죽음처럼 역대기에서 요시야의 죽음은 사실상 유다의 주권이 상실되고 왕권이 종식되기 시작한 시점으로써 포로기와 그 이후 세대 공동체의 새로운 운명을 암시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2) 성전과 제의

성전은 요시야의 죽음이 유다 왕권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된 이후 왕권 없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새로운 희망임을 말해준다. 요시야의 죽음 이야기의 서두와 그 이후 23년간의 마지막 왕정 역사와 멸망, 고레스 칙령에서 성전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성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열왕기의 마지막은 유다의 멸망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야긴의 석방을 보도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암시한다. 열왕기의 마지막이 새로운 희망으로 열린 결말을 지었다는 면에서 역대기와 공통점이 있지만 열왕기

51) 지도자 중심으로 본 전기예언서와 율법서의 관련성은 박동현, 「구약성경개관」 개역증보판 (장신대출판부, 2007), 70-71 참고.

에서 새로운 희망은 여호야긴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역대기는 성전 건축으로써 새 희망을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역대기 기자는 의로운 요시아 왕의 허무한 죽음과 이후 왕실의 악행이 독자(혹은 청중)로 하여금 왕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영구적인 대안으로써 성전과 제의를 받아들일도록 설득하려 했는지 모른다.

요시아 죽음이후 23년간의 마지막 유다 왕정을 설명하면서 왕의 유배와 함께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건을 반복해 언급한 것은 후일 성전 제의의 회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역대기 기자에게는 인질로 끌려간 왕의 행방보다 성전 기물이 바벨론에 보존된 사실이 더 중요해 보인다. 요시아는 죽기 전 이미 성전 정비를 완료했고 전무후무한 유월절 준수를 통해 제의를 제도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제의 관리로서 세워놓았다. 제의에 대한 관심은 요시아를 추모하는 관습에도 나타나며 땅이 70년 동안 황폐한 것을 안식년으로 해석한 언급에도 나타난다. 역대하 36장 21절 상반절은 레위기 26장 34-35절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70년간 땅의 황폐함은 이전 주민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기간이 되었다.⁵²⁾ 역대기 기자가 땅과 안식의 개념을 연계한 점과 고레스 칙령의 핵심을 성전 재건에 둔 것은 당대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희망이자 정체성이 성전과 제의에 뿌리박아야 한다는 메시지 때문일 수 있다. 유다 멸망의 책임자들 가운데 레위인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왕정 없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레위인을 옹호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3) 심판과 회복

요시아 왕의 최후 기록은 앞의 성공적인 유월절 준수와 연결되거나 부록이 아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인 회복을 전하는 이야기

52) M. Kartveit, "2 Chronicles 36:20-23 as Literary and Theological 'Interface'," 397, 402.

의 서두로 기능한다. 회복은 철저한 자기부정과 파괴, 갱생의 과정을 요구한다(렘 31:27-28). 요시아 왕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한 이방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였다. 야훼께 신실했던 왕조차 그의 말씀을 거역한 일은 유다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 유다 왕국의 운명은 급속하게 기울었다. 세 왕들이 연이어 포로로 잡혀 가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이르러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의 죄가 그의 진노로부터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놓였다(대하 36:16). 그들이 더럽힌 성전에서 바벨론 왕은 청년들을 살해했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기물을 가져갔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다 멸망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방의 노예들로 전락함으로써 심판이 종결되었다.

요시아 왕의 죽음은 느고의 입을 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지만 국가적인 추모 행사와 “올법대로 행한 왕”이라는 평가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에 충분하다(대하 35:25-26). 사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회복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암시는 심판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열왕기는 여호야긴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유다 왕들이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 각각 죽음을 맞은 것으로 기록한 반면 역대기는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성전기물도 열왕기에서는 일부가 카차프(קצף/‘떼어버리다’, 왕하 24:13), 사바르(שבאר/‘산산조각 나다’, 왕하 5:13) 등의 강조형 피엘 동사를 사용해 훼손된 것으로 묘사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런 묘사들이 없어서 훼손되지 않은 채 바벨론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대하 36:7, 10, 18). 느부갓네살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록 종의 신세이나마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생명을 유지한다. 유다 백성에게 70년 포로기간은 형벌이자 정화의 시간이며 유다 땅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성전에서 멸망당한 유다는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성전 재건으로써 회복이 시작되었

다. 페르시아 시대 말기 혹은 헬라시대 초기 역대기 기자는 자신의 시대를 분명한 회복의 시대로 인식함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6. 결론

유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죽음은 역사적, 종교, 신학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을 요구한 사건이었고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유다 왕권의 종식과 멸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다. 역대하 35장에 나타난 요시야 왕 죽음에 대한 보도는 역대하 36장과 연계해서 읽을 때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읽기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왕권이 종식되고 이후 포로기 이후 세대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알려주는 전환점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유다 왕권의 종식 이후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희망이자 정체성을 성전과 제의에 뿌리박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역대기 기자가 왜 레위인을 중요하게 언급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사실상 종식되기 시작한 유다 왕권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레위인을 옹호하려 했다. 그는 또한 요시야 죽음 보도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인 회복을 전하는 신호탄으로 여겼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죽음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적인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영적인 역사가였다.

7. 참고문헌

- 박동현, 「구약성경개관」 개역증보판. (서울: 장신대출판부, 2007).
- 안근조, “이사야 66장에 나타난 성전(성전) 논쟁 연구.” 「구약논단」. 제49집, (2013년 9월), 293-322.
- 배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제21집 (2006년 8월), 69-85.
- _____,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재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73집 (2011년), 75-96.
- 한동구,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제21집 (2006년 8월), 10-31.
- _____,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훼의 성전되심(겔 8-11장).” 「구약논단」. 제56집 (2015년 6월), 9-37.
- Begg, C. T. “The Death of Josiah: Josephus and the Bible.”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V. 64, (1988), 157-163.
- _____, “The Death of Josiah in Chronicles: another view.” *VT* 37, (1987), 1-8.
- Delamarter, S. “The Death of Josiah in Scripture and Tradition: Wrestling with the Problem of Evil?” *VT* LIV, 1 (2004), 29-60.
- Dillard, 레이몬드 B. 「WBC 역대하」,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5).
- Frost, S. B. “The Death of Josiah: a Conspiracy of Silence.” *JBL* (1968), 369-382.
- Graham, M. P. *The utilization of 1 & 2 Chronicles in the reconstruction of Israelite history in the nineteenth century*.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0).
- Graham M. P. & McKenzie S. L. ed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 in Text and Texture*, JSOT Supple. 263. (Midsomer Norton, Somerset: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Halpern, B. "Why Manasseh is Blamed for the Babylonian Exile: the Evolution of a Biblical Tradition." *VT* 48 (1998), 473-514.
- Janzen, D. "The Sins of Josiah and Hezekiah: A Synchronic Reading of the Final Chapters of Kings." *JSOT*, vol 37.3 (2013), 349-370.
- Japhet, S. *I & II Chronicles*. (London: SCM Press LTD, 1993).
- _____. *From the Rivers of Babylon to the Highlands of Judah: Collected Studies on the Restoration Period*.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6).
- Kautzsch, E.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2003).
- Klein, Ralph W. *Hermeneia 2 Chronicl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Louis C. Jonker, *Reflections of King Josiah in Chronicles: Late Stages of the Josiah Reception in 2 Chr 34f*.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3).
- Malamat, A. "Josiah's Bid for Armageddon."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y* 5, (1973), 267-278.
- Mayer 마이어, J. M. 「국제성서주석: 역대기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McLvor, J. S. *The Aramaic Bible: The Targum of Chronicles*, Colled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 Press, 1994).
- McKenzie, S. L. *The Chronicler's us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arvard Semitic Monographs 33. (1984).
- Mitchell, C. "The Ironic Death of Josiah in 2 Chronicles." *CBQ* 68 (2006), 421-435.

- Mowinkel, S.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V. ii.* (Oxford: Basil Blackwell, 1962).
- Peltonen, K. *History Debated: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Chronicles in pre-critical & critical research V. I.* (Helsinki: Finish Evangelical Society, 1996).
- Ralph W. Klein, *Hermeneia 2 Chronicles.* (MinneapolisFortress Press, 2012).
- Talshir, Z. "The Three Deaths of Josiah and The Strata of Biblical Historiography (2 Kings XXIII- 29-30; 2 Chronicles XXXV 20-5; 1 Esdras I 23-31." *VT* XLVI, 2(1996), 213-236.
- Von Rad G. 「구약성서신학 I」 허혁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6).
- Waltke Bruce K, &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 Weinfeld, M. *Deuteronomy and Deuteronomistic School,*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2).
- Williamson, H. G. M. "The Death of Josiah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VT* 32, (1982). 242-248.
- _____. "Reliving the death of Josiah: a reply to C. T. Begg." *VT* 37, (1987), 9-15.
- _____,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1 & 2 Chronicles.* (London: Marshall Morgan & Sott, 1982)

검색어

역대기

성전

제의

역대하 36장

요시아 왕의 죽음

역대기 신학

Josiah's Death and 2 Chronicles 36

Lee, Mi-Sook(Th. 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Israelite people expected Josiah as Judah's reformer to be the king who could revive their dying nation and save it from its doom. However, he was suddenly killed because he had been involved in an international dispute. As a result of his death the kingdom of Judah declined rapidly and ceased to exist after about 20 years. The Chronicler broke the silence found in Kings (2 Kings 23:29) and explained that Josiah was killed because he did not listen to God's words that were spoken by Necho.

Since 19th century, the Chronicler's report of Josiah's death has primarily been studied by using retribution theology or a historical approach, but some questions still remain. This study provides another explanation for the Chronicler's report. As such, it uses a synchronic reading to examine

www.kci.go.kr

the story, which gives a new perspective to the interpretation. What new theological meaning can be ascribed to the Chronicler's depiction of Josiah's death?

An answer to this controversial question can be found when the Chronicler's report is read not as an appendix of Josiah's story or as an isolate report, but as an interpretation of the passage presented in 2 Chronicles 36. After examining the macro-structure and rhetorical elements of the Chronicler's report of Josiah's death, that story can be seen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last chapter of 2 Chronicles and it functions as its opening. If so, what new theological meaning can this provide?

First, the Chronicler saw Josiah's death as a turning point, launching a new future for the exile and post-exilic generations after the kingdom of Judah had ended. Second, the Chronicler supported the Levites as the new leadership and suggested that the exiled and post-exilic people should root their hopes in the Temple and its cult. Third, the report of Josiah's death was a signal announcing God's judgement against Judah and an ultimate restoration of it. Josiah's death which had caused a sensation in Judah, demanded that a new historical, religious, and theological paradigm be implemented by the exile and post-exilic generations, and thus the Chronicler properly recognized its significance.

Keywords

Chronicles

temple

cult

2 Chronicles 36

Josiah's death

Chronicler's theology

- 투고일: 2015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5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06일

www.kci.go.kr